현대차그룹, 완성차 경영연속성 유지 주요 계열사 현장형 전문가 전진 배치


백철승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박찬영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나태준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지한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

수익성 개선·미래 사업전환 '투트랙'
현대모비스, 백철승 신임 대표 선임
"검증된 리더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완성차 부문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부품·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는 사업 정상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이끌 전문경영인을 전진 배치했다.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방어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전동화 등 미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은 26일 2026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는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선임됐다.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에는 박찬영 현대차 구매본부장 부사장,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는 나태준 건축사업본부장 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사업별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형 전문가의 배치다. 백철승 신임 현대모비스 사장은 현대트랜시스 대표를 맡아 글로벌 비계열 고객사 수주 확대와 부진 사업 합리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었다. 현대모비스에서는 생산·원가 효율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전동화·전장 등 미래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맡는다.

현대트랜시스를 이끌 박찬영 부사장은 현대차 전동화부품구매실장과 구매본부장을 거친 공급망 전문가다. 전동화 부품 현지화와 공급망 최적화 경험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전동화·시트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와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나태준 부사장은 전기차·배터리 공장과 북미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미래 기술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도 진행했다. 현대케피코 대표이사에는 현대차 SDV플랫폼담당 유지한 부사장이 선임됐다.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는 오준동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부사장이 이동했다. 유지한 부사장은 차량 제어 기술과 SDV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제어기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오 부사장은 AI 기반 생산·품질 기술과 유연한 제조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계열사별 수익성 개선과 미래 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경영 성과와 전문성이 검증된 리더를 중심으로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과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사장은 각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되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의 경영 고문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2월 중순 정기 임원인사도 예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인 평균 종부세 199만4000원

재경부,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년대비 38만8000원 올라

올해 개인 1인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이 평균 19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8만8000원 올랐다. 1주택자에 대한 평균 세액은 15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7만2000원 늘어났다. 다주택자로 분류된 과세대상 수는 1년 새 10만8000명 늘어난 43만8000명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내 주택 소유자 중 각 해당자 앞으로 '2026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주택분+토지분)는 81만7000명 대상으로 총 6조 원이 고지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2만6000명이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이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올해 고지 인원은 18만8000명(30.0%) 늘었다. 고지 세액도 7000억 원(13.7%)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년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9.13%)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3.35%)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법인 주택분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고지 인원은 66만9000명이다. 지난해(48만1000명)보다 18만8000명 많다. 고지 세액도 지난해(8000억 원) 대비 72.7% 증가한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1인 평균 199만4000원을 부담한다. 작년(160만6000원)보다 24.1%(38만8000원) 오른 수치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고지 인원·세액 증가율이 대체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37만7000명으로, 개인 주택분 고지 인원(66만9000명)의 절반 이상(56.4%)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개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고지 인원은 2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15만1000명) 대비 8만 명(53.0%) 늘었다. 고지세액은 3660억 원으로 작년(1679억 원) 대비 무려 11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평균 158만6000원을 내게 된다. 1년 사이 42.3%(47만2000원) 늘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고지 인원은 43만8000명으로 지난해 (33만 명) 대비 10만8000명(32.8%)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도합 9670억 원으로 지난해(6039억 원)보다 3631억 원(60.1%) 많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DX부문 수익성 악화 대응… 공조사업 강화

》1면 '삼성전자 B2B 통합조직'서 계속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사업부장 직속으로 홈 AI팀을 신설하고 정재연 부사장을 팀장으로 배치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TV와 생활가전 등 자사 제품을 연계해 AI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이다. 전략마케팅실 산하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를 위한 플래그십혁신그룹도 신설한다.

생활가전(DA)사업부는 생활가전(HA)사업팀과 냉난방공조(HVAC)사업팀 체제로 재편한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이 HA사업팀장을 겸임하고 임성택 부사장이 HVAC사업팀을 이끈다.

이번 조직개편은 DX부문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VD·DA사업의 합산 영업손실은 올해 2분기 100억원에서 3분기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존 TV·생활가전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조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일부 조직의 명칭도 변경한다. 의료기기사업부는 HME사업부로, 글로벌CS센터는 LX센터로 변경한다. LX센터장은 이시영이 맡는다. 글로벌브랜드센터는 글로벌마케팅센터로 명칭을 바꾼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